

출판의 고전적 정의

황루시

관동대 교수·국문학

모든 것이 흔해졌다. 먹을 것도 흔하고 입을 것도 흔하다. 이제는 누구도 불받아 양말 꿰매신지 않고, 아무도 짜깁기한 양복을 조심스레 입지 않는다. 헤어지면 버린다. 그뿐이다. 영화관·비디오방·만화방, 사방에 볼 것은 너무 많다. 읽을 것 역시 많다 못해 넘고 처진다. 쇠고기 한근 무게인 하루치 신문 하단에 깔려 있는 책광고만 읽으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양이다. 때로는 권위로, 때로는 화려한 수식어로, 그도 안되면 고풍적인 여인의 미소로 포장된 그 책들은 도대체 언제 누가 다 쓰고 출판한 것일까. 멀지 않아 필자와 독자수가 같아지는 때가 올 것만 같다.

세상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물자가 흔하다 해도 책만은 그렇지 않은 항목에 속했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책은 함부로 읽거나 버리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다. 책은 고전을 가려서 읽어야 하고 곱게 간직해야 하며 신성한 그 무엇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세뇌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영판 다르다. 책 역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종류의 오락 중 하나일 뿐이다. 더운 여름 구태여 차 밀려가면서 짜증스럽게 산 바다 찾지 말고 에어컨 돌아가는 시원한 집에서 추리소설이나 가슴 평한 연애책을 읽는 것도 피서의 한 방법이라는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독서권유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도대체 왜들 이렇게 책을 써대는 것일까. 인류역사에서 더 이상 큰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일까. 돌이켜보니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책을 쓰지 않았다. 예수나 석가, 소크라테스, 그들은 다만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었을 따름이다. 책은 그 제자들이 썼다. 우리 역시 모두 꼬맹이들이어서 이렇게 죽어라고 책을 쓰는 것은 아닐까.

유럽여행하는 길에 그리스 박물관에서 이집트 신화가 그려진 파피루스 한장을 산 적이 있다. 판광상품으로 만든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토록 어렵게 종이를 만들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미래를 경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흔넷되신 우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남이 쓰던 원고지 뭉치이다. 선생님의 모든 원고는 그 뭉치에 썬어진다. 그래서 어찌면 누가 돈 백만원을 주는 것보다 앞면을 채운 원고지나 리포트지 백장쯤 가져다주는 것을 더 반가워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조차 든다. (사실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쭙어본 적도 있다. 누굴 바보로 아느냐는 듯 웃으며 '돈이 더 좋아' 하셨지만...) 신문에 끼워들어오는 광고지도 한 면이 살아있는 한 절대 그냥 버리는 법이 없고 미래의 명작을 남길 종이를 활용하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여든이 넘는 나이에 첫 책을 내셨다. 반세기를 두고 모으신 전국의 설화집 열권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열권을 다 내는데는 다시 만 육년이 걸렸다. 학생들 리포트 뭉치에 썬어진 원고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큼직한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일일이 정서하느라고 걸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30년 동안 '모으신 민요음반을 다섯장으로 내시더니, 드디어는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쓰신 동요집을 네권으로 출판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아흔넷 나이에 말이다.

이번에 임석재 선생님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주는 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공정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평생 두고 해오신 작업을 평생 곁에 두고 읽고 들어도 좋은 책으로 만든 선생님은 글자 그대로 출판의 윤리를 실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책은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고전적 정의를 아직 살아있게 만드는 분이 아닌가. ❖

초점 2 해외저작권 전장의 '전위부대' 들

출판 시평 3 건강 위협하는 '건강서' 많다-박석준

문화 초점 4 공공도서관, 지역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다양한 행사로 주민들 유인...지역특성 살린 프로그램 마련해야

특집 / 가을에 읽는 신문 6 늦가을에 제격인 여유로운 산문읽기
강운구 / 이내옥 / 이장직 / 이재무 / 하응백
황인숙 / 한창훈

저자 초대 10 <조선통신사의 문학> 펴낸 이혜순 교수

11 <우리나라 민속놀이> 펴낸 심우성씨

화제의 신간 12 중국 최초의 통사 <사기> 완역

13 조이스 '의식호름' 따라 더블린을 걷다

출판화제 14 이론의 지평 여는 '대중문화' 연구

15 귀농을 꿈꾸는 이들의 미래

16 이 시대 결혼생활에 예리한 붓끝

학대서평 17 김영민 지음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외-김승철

스케치 기행 18 되살아나는 벽초의 삶과 문학

포럼 19 "정보전략형 대형유통센터로 기능해야"

해외신간 리뷰 20 카바레로 지음 <플라톤 유감>-이봉재

책 읽는 사람 22 6성 제롬의 초상과 책의 형상-정진국

재미있는 기획산책 23 화라슈트라우스 지로출판사의 <별들의 사자>-장익순

서평 24 한국서양사학회 <근대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이수훈
하야시 하지메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권인호

25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유중하

26 권태환 외 <전환기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이은진

정수복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김병완

27 벤 에거 <비판이론으로서의 문화연구>-강태완

28 A. 매길 <극단의 예언자들>-이정우

보드머 외 <인간의 책>-황상익

29 포지올리 <아방가르드 예술론>-김성기

이 책 그 사람 30 <조셉 콘라드> 펴낸 나영균씨

<봉화에서 텔레파시 통신까지> 펴낸 진용욱씨

31 <어느 정보사냥꾼의 고백> 펴낸 이종연씨

<재미있는 추구이야기> 펴낸 강신우씨

32 새책 호름 /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이중환

표지 / 김지옥

(카를게오르그 호퍼 작 <프라크투어>·관련기사 4면)